

# EBS, Quam Libet.

수능특강 윤리 by 마이뉴

1	<p>누구? 97p</p> <p>신에게는 사물을 낳는 힘과 사물을 이해시키는 합리성과, 그리고 인생에 도덕적 질서를 주는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것을 통하여 만물 중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고귀한 것 - 즉 그 분 없이는 어떠한 자연도 생겨나지 못하며, 어떠한 교설도 마음을 밝혀 주지 못하며, 어떠한 행동도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참되고 지극히 선한 신-을 향해 가도록 창조되어 있다면, 그는 만물을 완전하게 하는 것 안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며, 만물을 우리에게 명백히 하는 것 안에서 식별되어야 할 것이며, 만물이 우리를 위하여 정당화되는 것 안에서 소중히 여겨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p>
2	<p>누구? 98p</p> <p>모든 사고의 근원은 우리가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 있는 모든 개념은 최초에는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감각 기관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감각 기관이 얻은 것을 근원으로 하여 나머지 개념들이 생겨난다.</p>
3	<p>누구? 100p</p> <p>· 우리들의 정신은 자신과 신체를 영원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신에 대한 인식을 소유하며, 자신이 신에 의해서 파악된다는 것을 안다.</p>
4	<p>A, B은(는) 각각 누구? 102p</p> <p>A : 우리의 본성은 선(善)에 대해 약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 약하다. 왜냐하면, 본성은 쾌락에 의해 구원되는 반면, 고통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이다. /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직하게 살지 않고서는 쾌락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없다.</p> <p>B : 인간 정신의 주요 원천이나 원리는 쾌락이나 고통이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 따위의 감각이 우리의 사유와 느낌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대개 정념을 느낄 수 없거나 행동할 수 없고, 욕구하거나 의욕할 수 없다. / 이성은 완전히 무기력하며 결코 양심이나 도덕감과 같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의 근원이 될 수 없다.</p>